신한은행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인기

착한 배달앱 '땡겨요' 고공성장 이유있네

중개 수수료 2%대 업계 최저 수준
할인·적립·전용 대출 등 혜택 많아
월간 활성 이용자 5개월새 8.5배↑
가수 싸이 '민족 대이동' CF도 인기

신한은행의 음식주문 중개플랫폼 땡겨요가 고객, 가맹점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참여자들의 호평 속에 가수 싸이를 모델로 내세운 적극적인 마케팅이 주효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싸이가 모델로 출연한 땡겨요의 '땡기시조' CF. 사진제공 | 신한은행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1월 론칭한 신한은행의 음식주문 중개플랫폼 땡겨요가 고객, 가맹점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참여자들의 호평 속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땡겨요 앱의 1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만8462명이었지만, 6월 15만7301명으로 5개월 새 8.5배 급등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부천, 부산 4개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실시해 절대적 수치는 미미하지만 성장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배달앱으로 공익적 가치 실현

땡겨요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동네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낮은 중개 수수료,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금액 일부 적립 및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고객, 가맹점주, 배달라이더까지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플랫폼을 추구한다.

가맹점주에게는 2%대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6~10%대인 기존 배달 앱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광고비, 입점 수수료, 월 고정비 등 가맹점들의 부담도 크게 줄였다. 또 신한은행을 통한 빠른 정산 시스템이 특징으로, 주문 당일 입금(오후 3시 이후 주문 시 익영업일 오전 7시 입금)이 가능하다. 가맹점주의 자금 회전에 숨통을 트이게 해 빠르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마이(My) 고객서비스'로 단골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입점 시 첫 2개월간 매달 10만 원의 나눔 지원금을 제공해 점주들이 원하는 고객을 필터링·타겟팅해 할인 쿠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금융 혜택도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배달라이더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6월 기준 18억 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했다. 또 가맹점주를 겨냥한 '땡겨요 사업자 대출'을 선보인 데 이어, 카드 매출대금에 대해 선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춰, 총 3만1000건이 신청됐다. 이용 고객을 위해서는 '땡겨요 전용 카드'를 출시해 땡겨요 앱 이용 시 이용금액의 1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준다.

회사 측은 "땡겨요 참여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할수록 득이 되는 상생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가게 매출은 높이고, 고객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 앱 사용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모델 싸이와 함께 배달 낙원으로

가수 싸이를 모델로 내세운 적극적인 마케팅도 주효했다. 7월 11일 "같은 민족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배달에 아쉬웠던 민족이여 이동하라"라는 선언적 메시지를 담은 '민족대이동' 티저 CF에 이어, 땡겨요의 정체성을 담은 본편 CF인 '땡기시조'를 공개했다.

'위아리턴(爲我利攄), 아유혜피(我有惠彼): 나를 위해 이로운 것을 펼치니, 나에게 충만한 혜택이 있다'의 시조풍 카피와 무릉도원을 연상케 하는 몽환적인 영상미로 땡겨요를 배달 낙원으로 표현했다. 여기에 싸이의 신명나는 춤사위를 중심으로, 땡겨요의 세계관인 배달 낙원이 점차 보여지는 독특한 구성을 고속 촬영으로 완성해 CF 영상의 퀄리티를 높였다.

CF를 기점으로 다양한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브랜드를 연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의 주문 행복지수를 더하고 서비스 지역과 가맹점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CF로 새로운 배달앱인 땡겨요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용 고객이 다양한 혜택을 돌려받는 배달 낙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인기 식음료 브랜드와 파격적인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하나은행, 현명한 1대1 맞춤 자산관리 '더 퍼스트 서비스'

거래 고객 모두로 대상 확대
"차별화로 자산관리시장 선도"

'더 퍼스트 서비스'를 소개하는 하나은행 모델 손흥민. 사진제공 |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을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더 퍼스트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한정적으로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VIP 고객뿐 아니라 하나은행 거래 고객 모두로 대상을 확대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자산운용, 상속·증여 설계, 기업승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후견·유산기부, 글로벌 재산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 지원과 해결방안을 받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외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유수의 법무법인과의 자문 계약을 통해 개인고객뿐 아니라 기업고객도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이 없는 지방이나 해외 거주 고객은 화상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향후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9월 18일까지 모바일 플랫폼 하나원큐에서 금융 체험형 모의투자 게임 '투자의 마블' 시즌 2를 운영한다. 넷마블 게임 '모두의 마블'과 유사한 방식의 금융 체험 게임이다. 주식, 채권, 주요지수 등 11가지 금융 투자상품을 배열한 보드판 위에 주사위를 굴려 도착하는 칸마다 해당 상품에 대해 투자 결정을 내리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수익에 따라 자산의 증감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 투자성과에 도움이 되는 OX금융지식 퀴즈,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 속 소득·지출 랜덤카드 등으로 게임 보드를 구성해 요소별 자산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의미를 함께 전달한다.

정정욱 기자

이재근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국민은행-교직원공제회 주거래은행 협약

KB국민은행이 최근 서울 여의도 The-K 타워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시스템 관리, 임직원과 공제회 회원 대상 금융편의 제공,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금융파트너로서 전담 영업점과 고도화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보안체계를 적용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해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수납·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양 기관 모두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상생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9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22 Liiv(리브) 콘서트'를 연다. 싸이, 엔씨티드림, 로꼬, 그레이, 헤이즈, 케플러 등이 출연한다. KB스타뱅킹, 리브넥스트 등 주요 금융플랫폼과 MZ세대 상품·서비스 이용 고객 1만 명을 초청한다.

농협은행,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 오픈

NH농협은행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사진)를 오픈했다. 독도버스 내 NH농협은행 독도지점을 방문하면, NH올원뱅크 이벤트 참여 및 세금과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 낚시 미니게임, 독도의 명소 둘레길 방문,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금융상식 퀴즈 등 재미 요소를 강화했다. 회사 측은 "향후 흥미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16일 (화) 음력: 7월 19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띠	행운색	길방	운세
쥐	흰색	서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
소	흰색	서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고집을 부리면서 대화를 좀처럼 안하려 한다.
호랑이	적색	남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패이스대로 나아가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라.
토끼	적색	남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용	흰색	서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많은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
뱀	청색	동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	노랑	중앙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양	흰색	서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원숭이	검정	북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급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탄탄한 기반이 닦여 출세하게 된다.
닭	검정	북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멋진 마무리의 날이다.
개	흰색	서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취침 시 서남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돼지	흰색	서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오늘의 날씨

16일(화)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서울	20/10	24	30
인천	10/0	24	28
춘천	30/30	24	31
강릉	70/70	25	31
대전	90/10	25	31
전주	90/20	26	30
광주	100/100	25	29
대구	60/20	27	32
부산	60/80	27	29
창원	60/80	27	30
제주	60/60	29	33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8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